

별별신문

38호

| 발행일자 | 2018년 3월 16일

| 발행인 | 별별신문_ 용, 유나, 별, 달래, 차차, 인혜

별별신문은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신문입니다.

노래방, 성매매 집결지, 룸살롱, 단란주점, 키스방, 보도방, 티켓다방,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신문으로서, 여성들의 인권과 권리 찾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들어는 봤나 “불량언니 작업장”

조금 불량해도 괜찮아! 자본이 부순 터전에서 엮고 뜨고 다시 있다.

작년 청량리 재개발과 집결지 폐쇄가 전면화 되자 수 십 년간 청량리에서 살고 일 해온 여성들은 생계를 잃고 낯선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룸은 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집결지 현장 단체로서 조금이라도 여성들의 안전망을 만들기 위하여 생계비 지급, 전업 지원 등 한정된 자원으로 고군분투 해왔지만 부동산 이윤을 눈앞에 둔 자본과 국가의 욕망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재개발로 인한 강제퇴거와 이주에 직면하면 누구라도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 생존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겠지요. 청량리의 여성들 역시 그러했는데요. 그래도 십 년 동안 이룸과 만나온 몇몇 언니들은 하나 둘 뚝뚝 뭉쳐 이 힘들고 괴로운 시간을 버텨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청량리 반상회’가 만들어졌고, 작년 한 해 동안 꾸준히 만나고 여행도 다녀오며 여러 고민을 나눴습니다.

반상회의 가장 큰 고민은 집결지가 없어지고 나이가 든, 몸도 이곳저곳 아픈 상황에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는 나이든 여성들에게 청소나 식당일 등 저임금 고강도의 일자리밖에는 주지 않고, 그마저도 경쟁하여 얻기가 쉽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우리는 에라 모르겠다, 우리의 속도로,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무엇이라도 만들어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해보기로 했습니다.

(뒷면에서 계속)

꼭 필요한 화류계 정보들이 가득! 네이버 블로그에서 '화톡'을 찾아주세요!

화톡



우선 손뜨개 수세미를, 다음으로는 수제과일청을 만들었습니다. 이룸 회원 총회와 3.8 여성의 날 대회에 직접 갖고 나가 팔았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청량리 집결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과 지지를 확인하였고 힘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작업장 공간 마련을 위한 후원도 속속 들어왔고요!

우리는 이 공간에 '불량언니 작업장'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도, 멍통이, 내맘대로, 이호, 갱상도, 덤병이, 공주 이렇게 7명의 언니들과 용두동 이루미들, 그 외 연결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역경과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우리들만의 불량함으로 앞으로의 길을 걸어보려 합니다. 이태원 언니들과도 언젠가 만날 수 있기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요! (^-^)



☆☆ 별별타로 in 이태원

용하디 용한 타로 상담, 4월 24일 저녁 coming soon!

♡ 신청 방법 ?!

4월 24일 저녁,

용두동 이루미들 만나면,

타로상담을 하고 싶다고 얘기해 주세요!

무료 법률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사기죄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를 때, 일수, 사채 빚 등으로 힘들어 파산을 고민 중일 때, 병원을 가야 하는데 치료비가 부담일 때,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에 힘들 때, 전화주세요. 경찰조사 동행, 무료 법률 상담 및 변호사 선임해 드립니다.

철저한 비밀보장

이룸상담소 02-953-6279